

2024  
고1  
3월 학평

## 2024년 시행 고1 3월 학평 국어 문학 | 초록이 세상을 덮는다 지문 분석

이 서적은 「저작권법」에 따라 보호됩니다. 본 자료의 무단 배포, 도용 시,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### 지문 분석

< 잠깐 초록을 본 마음이 돌아가지 않는다.

[ 초록에 붙잡힌 마음(초록에 매료된 마음)이

초록에 붙어 바람에 세차게 흔들리는 마음이 ]([ ]: 점층법. 유사한 시구를 변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함. 전체적으로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과 그 효과에 대한 내용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.)

종일 떨어지지 않는다 >(< >: 초록을 보고 초록이 화자의 마음에 계속 남게 됨. 초록에 사로잡힘.)

[ 여리고 연하지만 불길처럼(직유법) 이글이글(음성 상징어) 휘어지는 초록 ]([ ]: 초록의 속성)

[ 땅에 박힌 심지에서 끝없이 솟구치는(상승의 이미지) 초록

나무들이 온몸의 진액을 다 쏟아내는 초록 ]([ ]: '~는 초록'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함. 초록의 생명력을 역동적으로 나타냄.)

[ 지금 저 초록 아래에서는

얼마나 많은 잔뿌리들이 발끝에 힘주고 있을까 ]([ ]: 의문형 어미를 통해 초록을 보고 화자가 한 생각을 나타냄. 힘의 근원에 대해 생각하고 있음. 이 시는 초록을 들여다보며 화자의 사색,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 '경험', '사색', '깨달음'이라는 내용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.)

초록은 수많은 수직선(휘어지는 속성을 가진 초록과 대비되는 이미지로 도시 공간을 상징함.) 사이에 있다 수직선들을 조금씩 지우며 번져가고 있다

직선과 사각(도시 공간을 상징함.)에 밀려 깨졌다가는 다시 살아나고 있다(초록의 끈질긴 생명력)

[ 흙이란 흙은 도로와 건물로 모조리 딱딱하게 덮인 줄 알았는데(초록을 보기 전 화자의 생각)

이렇게 많은 초록이 갑자기 일어날 줄은 몰랐다

아무렇게나 버려지고 잘리고 갇힌 것들이

자투리땅에서 이렇게 크게 세상을 덮을 줄은 몰랐다 ]([ ]: 초록의 생명력에 대한 감탄, 놀라움. 초록에 대한 예찬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자연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드러나는 시와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)

[ 콘크리트(도시 공간을 상징함. 딱딱하고 건조한 도시 공간과 여리고 부드러운 생명력이 넘치는 초록의 이미지가 대비되고 있음. 이 시에 나타나는 대비적인 이미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) 갈라진 틈에서도 솟아나고 있는

저 저들적인 고요(역설적 표현. 사람들 모르게 자신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퍼트리고 있는 초록의 모습을 표현함. 자연의 힘은 고요하지만 강력하다는 것임. 이 시구의 표현과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)

단단하고 건조한 것들에게 옮겨 붙고 있는

저 촉촉한 불길(역설적 표현. 시각의 촉각화. 건조한 도시 공간에 생명력을 퍼트리는 초록의 모습을 표현함.) ]([ ]: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고 있음. 명사형으로 시행을 끝맺음으로써 여운을 형성하고 있음.)

- 김기택, 「초록이 세상을 덮는다」

### 핵심 정리

- 갈래: 자유시, 서정시
- 성격: 예찬적, 사색적, 역동적, 감각적
- 주제: 초록을 통해 깨닫게 된 자연의 역동적 생명력
- 특징
  - 직유법, 역설법 등 다양한 표현법을 통해 초록을 형상화함.
  - 음성 상징어와 상승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초록의 생명력을 역동적으로 나타냄.
  - 초록과 도시 공간의 이미지를 대비하여 초록의 생명력을 부각함.
  -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함.
  -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함으로써 여운을 형성함.

### 이해와 감상

도시 공간에서 마주한 초록에 사로잡힌 화자가 초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깨닫게 된 자연의 역동적 생명력에 대한 놀라움과 감탄이 드러난 작품이다. 초록은 여리고 부드럽지만, 불길처럼 맹렬한 기세로 건조하고 딱딱한 도시 공간을 촉촉하게 적시며 온 세상을 생명력 넘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있다. 치밀한 관찰과 투시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고요한 가운데 약동하는 생명의 기운을 포착하여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.